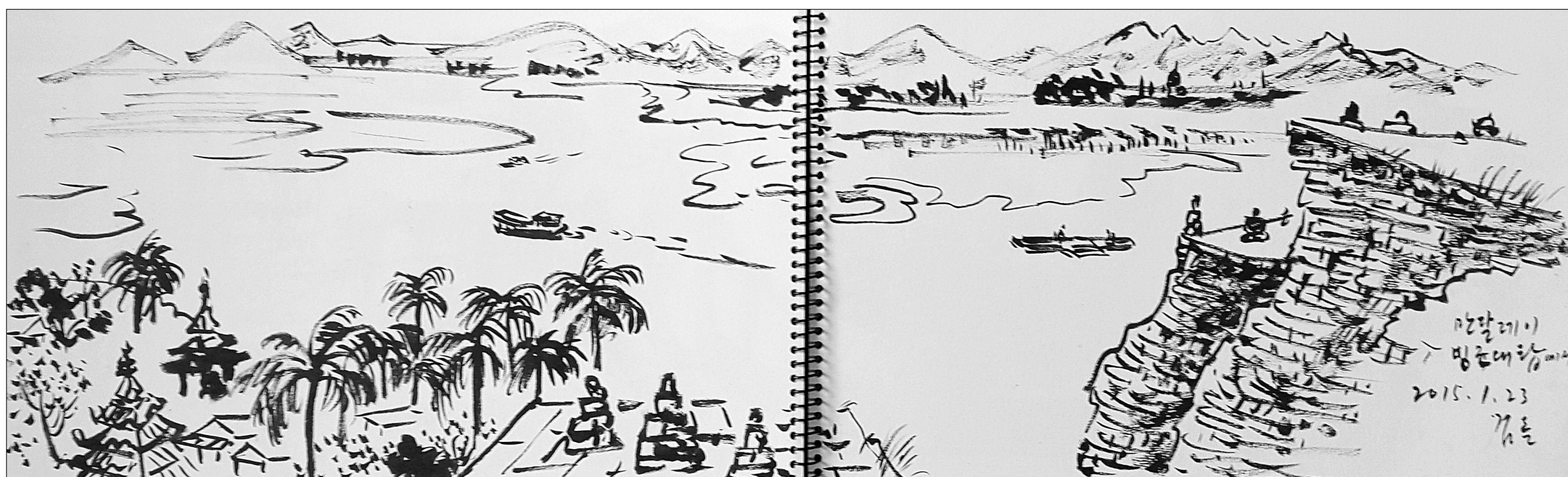


황금부처님의 나라를 가다 ③

그림 이호신·글 이종성 작가

무너진 곳에서 새로운 길을 보다



부처의 몸 진신을 만지다

마하무니 사원에 도착한다. 황금 4톤으로 이루어 졌다는 말이 실감 난다. 마하는 위대한, 큰 등의 뜻이 있다. 순일하고 순수한 일심만이 진여의 몸체가 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현장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올리고 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여자는 불상 앞 일정 거리를 둔 곳까지만 접근이 가능하고, 부처님을 손으로 만질 수 없다. 살아계신 부처님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얼굴을 제외하곤 본디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참배하는 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금박을 입히고 있다. 매일 새벽 4시에 세안 의식을 갖고, 매년 개금(蓋金)을 하는데 2.7kg의 금분이 소요된다고 한다. 아주위할 아내를 생각하여 부처님의 진신에 손을 대고 기도한 손을 아내의 얼굴에 댄다. 영험한 기운과 자비로 늘 건강하기를 바라며, 분당을 나와 뒤흘에 있는 건물로 들어간다. 이마 하무니 사원을 일으킨 '예로세야도' 큰스님이 모셔져 있다. 해탈한 고승의 눈매가 깊이를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깊다. 경건함 속에서 세상의 속기들이 있을 곳이 없다. 이어 경내의 박물관으로 들어간다. 몇 기(基)의 캄보디아 불교 동상(銅像)이 있다. 약탈해온 것으로 30여기가 있었는데 티보왕 때 대영항쟁 당시 대포로 만들어 사용했다고 한다. 특이한 점은 동상의 배와 무릎 부분이 반질반질하다. 아픈 부위를 문지르며 낫게 해달라는 소원의 손길에 의한 것이라고 하니 무심해 그냥 지나치기가 어려운 것이다. 잠시 쉴 겸 사원의 기둥에 등대고 앉는다. 샘물처럼 솟아서 흐르는 평화로운 동경소리, 나는 잠시 세상의 과녁으로부터 벗어난다. 바로 위에 앉은 비둘기가 풍을 싸도 비껴 떨어진다.

무너진 곳이 길이 되다

사원을 나와 이라와디 강으로 내려가 배를 타고 이동한다. 미완성의 미얀마 대담을 보러가는 길이다. 비스듬한 선상의 의자에 반쯤 누워 강물에 몸을 실는다. 바람에 마음을 맡긴다. 파랑에 깔리고 물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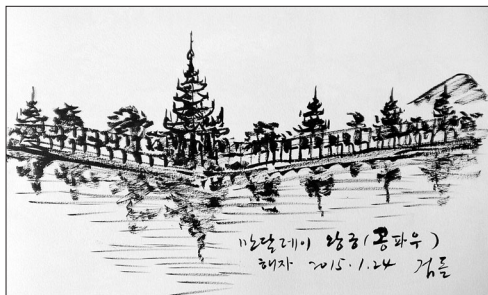
닿이는 시간들, 마음이 반짝거린다. 미풍을 받으며 즐기는 선상유람, 세상에겐 영원한 것들이 있다고 누군가 속삭여온다. 강가에 쌓인 흰 모래톱과 사람들,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모습 속에 근심이 없다. 목재를 실은 대형 바지선 옆을 지나간다. 한 시간 넘게 물살을 거슬러 목척지에 도착할 무렵 강 건너 거대한 대담의 위용이 드러난다. 얼굴이 까만 아이들은 손에 그 나뭇대로의 물건을 들고 기다렸던 관광객들에게 원 달러를 말하며 달라붙는다. 어떤 아이들은 손을 잡아끌며 앞장서서 탑으로 안내한다. 풍부한 자원과 넓은 국토면적을 갖고 있는 나라면서 경제발전의 수준은 우리나라 칠십년 대에 머물러 있다. 아이들은 순박하다. 어떤 작은 물건이나 긍정적 행위를 통해서 도움을 받기를 원하지 구걸하지 않는다. 유럽인들은 냉철하고 이성적이어서 어떨까. 그들에게 절대로 무엇을 주지 않는다. 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들과 같은 어려운 시절과 궁핍의 시기를 경험해보았고, 정이 많은 민족이어서 잘 뿌리치지 못한다. 이미 누군가는 말을 삼고 동행한다.

가로 백사십 미터 높이 오십 미터의 벽돌로 만든 전탑의 형태로 그 규모가 장대하다. 1790년 마지막 왕조인 공파웅 왕조의 보다우파야왕 때 전쟁포로와 노예와 노동자들이 대거 투입되었으나 완공을 하지 못하고 재정 및 노동력 등의 문제로 중단되어 미완성으로 남은 탑이다. 또한 그때 당시 강제노역에 동원된 노예들이 도망가다 인도 국경을 침범하는 바람에 영국군의 미얀마 침략의 빌미가 되었다고 한다. 안 타깝게도 1838년 대지진으로 탑이 훼손되어 균열이 깊다. 참배를 하고 탑의 꼭대기로 난 계단을 통해 오른다. 계단이 무척 가파르다. 정상부에 올라선다. 아름다운 이라와디강을 배경으로 왼쪽 아래로 흰색의 신령미 사원과 열대의 나무들이 어우러져 그림 같은 풍경이 장관이다. 갈라진 틈새를 조심스럽게 건너며 한 바퀴 돈다. 사방팔방 막힌 곳이 없는 시원한 조망으로 마음의 지평이 열린다.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운 불가사의한 불탑들, 저 불탑들은 어느 마을에서 만들어진 것일까. 그 마음이 밀고 간 세계는 우리가

황금 4톤의 마하무니 사원 매년 개금 미완성으로 남은 미얀마 대담 장관 이워 청동대종 그 모양과 소리가 인상적 마지막 왕조 만달레이 왕궁 규모 장대



90톤에 달하는 청동대종 '민군범종'



미얀마 마지막 왕조인 공파웅 왕조의 만달레이 왕궁

모르는 어떤 빛깔과 형상이 있어서 신비와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일까.

아래로 내려와 대담을 바라본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무너진 곳에 길이 났다. 그 길이 조금은 불안하고 위험이 내재되어 있지만 무너진 곳에서 새로운 길을 본다. 그러니까 저 미완의 대담은 우리 인간이 끊임 없이 추구하고 새롭게 만들어야 할 큰 길이 무언지를 깨닫게 하는 커다란 하나의 화두인 것이다. 미얀마 대종을 보러간다. 구십 톤에 달하는 청동대종의 크기가 쉽게 가능되지 않는다. 모양은 단순하고 소박하다. 당목(檀木)을 들어 힘껏 쳐본다. 알 수 없는 소리가 저 깊은 곳에서 나와 어느 세계인가로 가 닿는다. 우리나라 국보 제23호 성덕대왕신종인 에밀레종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모양과 소리다. 하지만 그 바람은 성덕대왕 신종의 명문 "신종이 만들어지니 그 모습은 산처럼 우뚝하고 소리는 용의 울조림 같아 위로는 지상의 끝까지 다하고, 밑으로는 땅속까지 스며들고 보는 자의 신기함을 느낄 것이지요, 소리를 듣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와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잠시 정을 엮던 아이들과 이별하며 배에 오른다. 강둑에 앉아 뭇가가 아삭하고 서운하고 속상한 마음을 끝내 풀지 않는 아이가 보인다. 말뚝이 맨 끈은 풀어져 배는 강물로 미끄러져 간다. 누군가가 사탕봉지 같은 무언가를 함꼐 아이에게 던진다. 아이는 그제야 손을 흔든다. 배에 올라 다시 이라와디강을 따라 간다. 미얀마 대종의 울음들이 붉은 강물로 번진다. 강 건너 산 너머로 해가 지고 있다. 속소인 만달레이힐리조트 호텔에 들어 하루를 정리한다. 창밖으로 만달레이 왕궁의 불빛이 아름답다.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랑이라고 반짝이고 있다.

인레호수에 빛나는 원시의 비장미

아침 일찍 속소를 떠나며 미얀마 마지막 왕조인 공파웅 왕조의 만달레이 왕궁을 잠깐 살펴본다. 왕궁을 둘러싼 해자(壕子)가 인상적이다. 폭 칠십 미터 물의 깊이는 삼 미터이고 담장의 높이는 팔 미터에 달한다는 그 규모가 장대하다. 공함으로 이동하여 국

내선 비행기를 타고 헤호로 향한다. 비행기가 산악 지대로 접어들며 고도를 높인다. 오름을 닮은 산들의 군집이 웅장하다. 헤호는 해발 고도가 1328미터에 이르는 고원지대다. 산맥을 넘어가는 비행기 아래로 산비탈에 펼쳐진 밭들이 장관이다. 붉은 황토색의 밭들이 무수한 색색의 조각보를 오려서 이어놓은 모습이 만다라 같다. 그 사이로 난 기다란 길과 금빛으로 빛나는 작은 호수가 아름답다.

공함은 우리나라 시골 정거장의 분위기가. 기후는 서늘하여 초가를 날씨를 연상케 한다. 고산지대에서 재배한 옥수수과 딸기 등을 팔고 있는 사람들, 작은 것에도 진정 기뻐하는 모습이 행복해 보인다. 입이 귀에 걸리는 초승달의 미소가 그것을 말해준다. 헤호는 산스테인즈주의 산족이 주류를 이루고 그 다음으로는 목에 동으로 만든 띠를 감고 사는 빠오족이며, 주도는 따운지('따운'은 산, '지'는 크다는 뜻)라고 한다. 버스를 타고 산 아래로 이어진 굽이진 비탈 길을 내려간다. 중국의 운남으로 이어진 도로라고 한다. 미얀마는 세계 최대의 불교국가이지만 불교가 국교는 아니다. 버마족, 산족, 카렌족, 몬족 등 135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버마족이 주류를 차지하고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쳐 과거 버마로 불렸으나 소수민족의 저항을 수용하고 아우르는 차원에서 7개의 주로 구성된 미얀마연방공화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도는 현재 네피도이다.

인타족이 살고 있는 인레호수로 가기 위해 입장권을 구입하고 호수로 들어선다. '인타'는 '호수의 아들'이라는 뜻이다. 모터보트는 다섯 명씩 탈 수 있다. 폭은 좁고 길어 강남공 고풍리 속에 나란히 들어앉은 느낌이다. 햇빛과 바람과 튀는 물방울을 막기 위해 우산이 의자 옆에 하나씩 준비되어 있다. 물론 구멍조끼도 착용한다. 바람을 가르며 물살을 헤치고 정박지를 빠르게 벗어난다. 좌우로 길게 수상가옥들이 늘어서 있다. 처음 들어선 호수의 물빛은 탁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호수 안으로 들어갈수록 물빛은 푸르미 그치지 않는다. 가도 가도 그 자리인 느낌이 들만큼 호수는 넓다. 남북으로 길게 장장 이십이킬로미터에 걸쳐있고 폭이 십일킬로미터에 이르러나 바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부레옥잠은 여기저기 작은 섬처럼 떠있다. 뿌리로 질소, 인 등을 흡수하여 수질을 정화하는 수경식물이다. 1ha의 면적에 연간 1,700kg의 질소와 300kg의 인을 흡수할 만큼 수질정화 능력이 뛰어나다. 이는 오백명 정도의 사람이 배출한 오수를 정화하는 것과 같은 효과다. 인레호수의 청정 수질이 유지되는 비결이 이 부레옥잠에 있었던 것이다. 망망한 호수를 달린다. 자백질을 하며 물고기를 잡는 가마우지가 심심찮게 보인다. 그물을 던지거나 외발로 노를 저으며 물고기를 잡는 풍경들은 문명의 대도시 속에 살아온 눈으로는 도무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호수에서 나서 호수에 살다 호수로 돌아가는 사람들, 안타깝게 물에 오르면 딸미를 한다고 한다. 그만큼 호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다. 한 시간 가까이 달려선 차장에 닿는다. 옛 그림에서 보았던 파초가 무성하다. 먼저 여장을 풀기 위해 속소인 호텔로 간다. 깨끗하고 조용하고 아름다운 별리의 세계다. 입구의 동백꽃을 닮은 립바꽃이 붉다.

2559년 석가탄신기념

특별한정판 출시

능인향당에서는 진실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금강산 유점사에서 전해진 오분향 법제 그대로를 기능성 약용향료를 사용하여 재현한 능인계향을 출시합니다.

히말라야를 넘어 구해 온 다섯가지의 향목과 꽃으로 법제된 능인계향은 그 절대적인 약성으로 기혈을 편하게 풀어주어 새벽예불에도 밤새 안정된 기운을 흐트리지 않습니다.

능인계향은 초파일까지만 특별 한정판으로 생산되며 주문에 의해서 사찰에만 공급합니다.

■ 가격 : 15,000원 (초파일 이후 현지 사정에 의해 단종되거나 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www.nihwa.com
02)3663-6777

능인향당

사찰 건축

천년 가람을 이루는 지극한 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최신스틸공법 시공 / 대응전 / 요사채 / 산신각 / 전문시공

스틸한옥의 장점

- ◆ 단열효과가 높고 유지 보수가 쉬우며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
- ◆ 층수에 관계없이 고층 시공이 가능함. 한옥빌라, 한옥빌딩, 한옥아파트 등
- ◆ 스틸구조에 의해 디자인 면에서도 한옥의 선을 맘껏 살릴 수 있다. 다양한 디자인 한옥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립니다.

(주)만성기업 한중열 합장
부산 사상구 강선로 11번지 / 010-4245-1335